

구조적 차원성 탐색을 통한 ‘노인 생활 만족도 척도’의 재발견:

최성재의 ‘노인 생활 만족도 척도’를 중심으로*

최혜지

(서울여자대학교)**

이영분

(건국대학교)

[요 약]

본 연구는 구조적 차원성 탐색을 통한 최성재의 ‘노인 생활 만족도 척도’의 재검증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충주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 275명의 자료가 분석되었다.

연구 결과 ‘노인 생활 만족도 척도’는 세 개의 이론적 구인으로 구성된 다차원 구조를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규명된 구인은 ‘긍정적 정서와 주관적 만족감’, ‘부정적 자아상과 부정적 정서’, 그리고 ‘자기 가치’로 명명되었다. 세 구인 모두 높은 신뢰도를 보였으며 ‘내적 구조에 근거한 타당도’ 또한 모두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긍정적 정서와 주관적 만족감’ 그리고 ‘부정적 자아상과 부정적 정서’는 수렴 타당도와 판별 타당도가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 가치’는 높은 수렴 타당도를 보인 반면 판별 타당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노인 생활 만족도 척도’를 단일 차원 구조로 제시한 개발자의 견해와 달리 ‘노인 생활 만족도 척도’의 다차원 구조를 검증함으로써 다수의 선행 연구 결과를 지지한다. 끝으로 ‘노인 생활 만족도 척도’의 구조적 차원성이 개발자의 연구와 본 연구에서 상이하게 나타난 원인이 논의되었다.

주제어 : 노인 생활 만족도 척도, 노인, 삶의 만족도, 사회 도구, 신뢰도, 타당도

* 이 논문은 건국대학교 특성화연구 지원에 의한 논문임

** 연구진행시 건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 재직, 교신저자

1. 문제제기

평균 수명 증가에 따른 노년기의 확대로 노년의 삶이 개인의 인생에서 갖는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노년기가 인생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확대됨에 따라 노년기를 부가적으로 부여받은 덤과 같은 시간으로 조명하던 소극적 시각은 삶의 완성기로서 노년이 갖는 의의와 질적 설계에 주목하는 적극적 시각으로 전환되었다. 노년의 삶에 대한 적극적 시각으로의 전환은 노인의 삶의 다양한 면면들은 이해하고 분석하려는 학문적 접근의 양적 팽창을 가져왔다.

최근 주목할 만한 증가를 보이고 있는 국내 노년학 연구는 노인의 신체·정신적 건강, 노년의 가족·사회적 관계, 노년기 빈곤 등 다양한 주제로 개념화되었으나, 궁극적으로 노년기 삶의 질이라는 중심 주제로 수렴된다. 노년의 삶에 관한 국내 연구가 삶의 질을 중심으로 진행된 만큼 한국 노인의 삶을 과학적으로 측정하려는 학문적 노력 역시 계속되어 왔다. 노인의 삶의 질에 대한 이해는 삶의 질이라는 이론적 개념의 과학적 측정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한국 노인의 삶의 질을 측정하기 위한 사회 도구의 개발이 한국 노인 연구에서 갖는 의미는 절대적이다.

한국 노인의 삶의 질을 측정하기 위한 사회 도구는 윤진(1982)에 의해 처음 개발되었으며 이후 ‘노인 생활 만족도 척도’가 최성재(1986)에 의해 개발되었다. 최성재의 ‘노인 생활 만족도 척도’는 노인복지 분야의 대표적 사회 도구로 현재까지 한국 노년학 연구에 널리 사용되어 왔다. 인구 고령화의 사회적 변화로 노년기 연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관련 연구의 실질적 증가가 관찰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노인 생활 만족도 척도’가 한국 노인 연구에 갖는 유용성과 중요성은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성재의 ‘노인 생활 만족도 척도’는 사회 도구 개발을 위한 일련의 과정¹⁾을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높은 신뢰도와 타당도를 갖춘 사회 도구로 완성되었다. 한국 노인의 사회·문화적 특성을 적절히 반영함으로써 문화적 적합성 또한 높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우수성에도 불구하고 ‘노인 생활 만족도 척도’는 삶의 만족도의 이론적 구인 구조를 단일 차원 구조로 설명한다는 점에서 여타 삶의 만족도 척도와 주목할 만한 차이를 보인다.

삶의 만족도의 이론적 구인 구조를 탐색한 국내·외 선행 연구는 삶의 만족도가 하나 이상의 이론적 구인²⁾으로 이루어진 다차원적 개념임에 전반적으로 동의한다. 노년기 삶의 만족도 연구의 선구자인 니가르텐과 그의 연구진은 노년기 삶의 만족도가 다섯 개의 이론적 구인으로 구성된 다차원적 개념임을 강조한다(Neugarten, Havighurst, and Torbin, 1961). 노년기 삶의 만족도를 구성하는 이론적 구인의 수와 정의는 관련 연구들마다 상이하게 나타나지만, 삶의 만족도를 다차원적 구조로 정의한다는 점에서는 니가르텐과 의견을 같이한다.

1) ‘노인 생활 만족도 척도’ 개발의 구체적 과정은 최성재(1986)의 “노인의 생활 만족도 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를 참조하기 바란다.

2) 본 연구에서 이론적 구인, 요인, 차원 등은 동일한 개념으로 혼용되었다.

사실 최성재 또한 노인 생활 만족도가 시간적 서열에 따라 과거의 삶에 대한 만족도, 현재의 삶에 대한 만족도, 그리고 미래의 삶에 대한 만족도라는 이론적 구인으로 이루어진 다차원 구조를 갖는다고 가정했다. 그러나 그의 연구에서 다차원 구조의 가정이 지지되지 못함으로써 ‘노인 생활 만족도 척도’를 단일 차원 구조로 결론지었다.

그러나 국내·외 선행 연구를 통해 밝혀진 바와 같이 삶의 만족도는 종합적 개념이다. 따라서 노년기 삶의 만족도는 다양한 이론적 구인으로 이루어진 다차원적 구조로 접근되어야 한다(임희섭, 1996; Felce and Perry, 1996). 이와 같은 이유에서 단일 차원 구조로 주장되어 온 최성재의 ‘노인 생활 만족도 척도’의 구조적 차원성에 문제가 제기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노인 생활 만족도 척도’의 이론적 구인을 탐색하여 1) 구조적 차원성을 규명하고 2) 규명된 이론적 구인의 심리측정적 특성(psychometric property)을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단일 차원 구조로 사용되어온 ‘노인 생활 만족도 척도’의 구조적 차원성(dimensionality)에 대한 문제의 제기로부터 출발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문제제기와 목적은 ‘노인 생활 만족도 척도’의 신뢰도 및 타당도와는 독립적인 척도의 구조적 차원성 규명에 있음을 강조한다. 본 연구는 한국 노인의 삶의 만족도의 구조적 차원성을 규명함으로써, 최성재의 연구에 보완적 시각을 제공하고 ‘노인 생활 만족도 척도’의 유용성과 정교성을 높인다는 의의를 갖는다. 연구목적을 위해 다음의 연구 문제가 조사되었다.

연구문제 1. 노인 생활 만족도 척도의 구조적 차원성은 무엇인가?

연구문제 2. 노인 생활 만족도를 구성하는 이론적 구인의 심리측정적(psychometric) 특성은 무엇인가?

2. 삶의 만족도

1) 삶의 만족도에 관한 이중-요인 관점(two-factor view of life satisfaction)

이중-요인 관점은 브래드번의 행복에 대한 이중-요인 이론으로부터 발전되었다. 브래드번(1969)은 행복에 관한 그의 연구에서, 부정적 정서와 긍정적 정서 모두 개인의 주관적 행복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반면 부정적 정서와 긍정적 정서는 서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를 근거로 브래드번은 부정적 정서와 긍정적 정서는 주관적 행복감을 구성하는 두 개의 독립적 영역임을 주장하는 이중-요인 관점을 정립했다. 이후 브래드번의 이중-요인이론은 주관적 행복감뿐만 아니라 삶의 만족도를 비롯한 심리적 복지감을 설명하는 이론으로 확대되었다(Lawton, Moss, Kleban, Glicksman, and Rovine, 1991). 다양한 후속연구에서 심리적 복지감에 관한 이중-요인 이론을 수정하거나 보완하려는 시도들이 지속되어왔으나, 긍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는 서로 독립적이며 두 요인 모두 심리적

복지감을 특징짓는 필수적 요인이라는 기본 명제는 더욱 견고하게 발전되었다(Watson and Tellegen, 1985).

이중-요인 관점에 의하면, 긍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는 독립적일뿐만 아니라 그 기원 또한 서로 다르다. 긍정적 정서는 사회적 행동이나 사회적 활동과 같은 외적 사건(event)의 질에 의해 결정되는 반면 부정적 정서는 신체적 건강과 내적 특성에 의해 더욱 큰 영향을 받는다(Lawton, 1983).

이중-요인 관점에 의하면 심리적 복지의 한 형태인 삶의 만족도 또한 긍정적 정서를 대표하는 요인들과 부정적 정서를 대표하는 요인들로 구성된다. 긍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 모두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하위요인들로 재분화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중-요인 관점은 삶의 만족도는 두 개의 이상의 다차원적 구조를 갖는 개념으로 접근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2) 삶의 만족도의 정의

삶의 만족도는 긍정적 노년의 조건을 대립적 시각에서 제시한 활동이론(activity theory)과 분리이론(disengagement theory)의 이론적 검증과정으로부터 발전되었다. 삶의 만족도에 대한 초기 작업은 니가르텐과 그의 동료들(Neugarten, Havighurst and Tobin, 1961)에 의해 이루어졌다. 니가르텐과 동료들(Neugarten et al., 1961)은 삶의 만족도를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자신의 삶을 만족스럽다거나 또는 행복하다고 평가하는 정도’라고 정의함으로써 삶의 만족도가 갖는 주관성과 총체성을 강조하였다.

칼리쉬(Kalish, 1975)는 삶의 만족도를 ‘삶을 의미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기대했던 목적을 성취했다고 생각하는 정도와 환경과 조화를 유지하면서 어려움 없이 개인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정도’로 개념화 했다. 칼리쉬의 정의는 삶의 만족도를 기대의 성취 그리고 환경과 조화한 욕구충족으로 구체화함으로써 삶의 만족도의 하위영역을 정의하고자 했다는 의의를 갖는다. 메드리(Medley, 1976)는 삶의 만족도를 ‘개인의 기대가 합리적으로 충족되었는가에 대한 주관적 평가’로 개념화함으로써 삶의 만족도가 갖는 주관적 특성을 강조했다. 특히 메드리의 정의는 기대와 기대의 충족 사이의 상대적 비교를 통해 삶의 만족도를 조명했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죠오지(George, 1979)는 삶의 만족도를 ‘기대와 성취의 비교를 통한 자기존재에 대한 평가이며 행복감을 포함한 복합적인 개념’으로 정의했다. 죠오지의 정의는 메드리의 정의에서 나타난 기대와 성취의 상대성 그리고 주관성과 총체성 모두를 삶의 만족도의 특성으로 포함하고 있다.

삶의 만족도에 대한 국내 학자들의 정의는 앞서 살펴본 국외 학자들의 정의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효재(1979)는 삶의 만족도를 ‘일상에서 기쁨을 느끼고 자아에 대해 긍정적인 상을 유지하며 일반적으로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낙관적 태도와 기분을 지속하는 상태’라고 정의했다. 이효재의 정의는 니가르텐과 동료들이 주장한 삶의 만족도의 하위 차원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한편, 최성재(1986)는 삶의 만족도를 ‘개인이 인식하는 자신의 과거와 현재의 삶에 대한 태도와 주관적이고 종합적인 만족감’으로 정의하였다. 최성재의 정의는 삶의 만족도의 주관성과 총체성을 강조하였으며 삶에 대한 태도를 만족감의 중요 요인으로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새롭다. 김익기(1999)는 삶의 만족도를 ‘일상적 삶을 통해 누적된 정서와 인식이 오랜 기간 지속되어 구성된, 삶의 객관적이고 환경적인 여건

과는 구별되는 주관적 만족도라고 정의'하였다. 김익기의 정의는 삶의 만족도가 갖는 시간적 역사성과 지속성 그리고 주관성을 강조한다. 한정란과 김수현(2004)은 '인생전반에 걸쳐 느끼는 지배적인 정서에 대한 평가이며 기대의 충족정도'로 삶의 만족도를 정의하고 있으나 기존의 정의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였다.

3) 삶의 만족도의 차원(Dimensionality)

(1) 단일차원 구조

삶의 만족도에 대한 정의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삶의 만족도의 다차원적 구조에 대한 합의는 매우 높다(박영숙, 2003; 허준수, 2004). 그러나 연구에 따라 삶의 만족도를 단일 차원으로 규정하기도 한다. 최성재(1986)는 60세 이상의 한국 노인 200명을 대상으로 한 '노인의 생활 만족도 척도' 개발을 위한 연구에서, 노인의 삶의 만족도는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적 영역에 따라 세 개의 하위 영역으로 구성되었을 것으로 가정하였다. 그러나 연구결과 노인의 과거, 현재, 미래의 삶이 삶의 만족도의 하위 차원으로 지지되지 못함으로써 20개 문항으로 구성된 '노인의 생활 만족도 척도'는 단일 차원의 속성을 갖는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디너와 그의 동료들(Diener, Emmons, Larsen, and Griffin, 1985)은 다섯 문항으로 구성된 삶의 만족도 척도(Satisfaction With Life Scale)를 소개하면서 삶의 만족도가 단일 차원으로 구성되었다고 보았다. 그러나 디너의 연구는 5개 문항의 삶의 만족도 척도가 삶의 질 척도의 하위척도의 하나로 설계되었다는 점에서 최성재의 연구와 차이를 보인다.

(2) 다차원 구조

삶의 만족도의 하위 차원에 대한 견해는 삶의 만족도의 개념만큼이나 다양하다.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는 삶의 만족도의 하위 차원은 니가르텐과 동료들에 의해 소개된 다섯 차원구조이다. 니가르텐과 동료들(Neugarten 외, 1961)은 삶의 만족도가 다섯 개의 이론적 구인으로 구성되었다고 주장한다. 첫째 구인은 '현재의 삶에 대한 만족'으로 이는 현재의 생활이나 활동을 통해 얻은 만족의 정도를 의미한다. 두 번째 구인은 '인생의 의미'로 자신의 삶이 어느 정도 의미 있다고 인식하는가의 정도를 말한다. 세 번째 구인은 '목적의 성취'이다. 이 차원은 자신이 희망하는 삶의 목적을 어느 정도 달성했다고 평가하는가의 정도를 나타낸다. 네 번째 구인은 '긍정적 자아상'으로 사는 동안 자아에 대한 평가를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유지해 왔는가를 의미한다. 마지막 구인은 '낙관성'으로 일상에서 어느 정도 낙천적인 태도와 정서를 유지하는가에 관한 정도를 의미한다.

한편, 뉴키티(Newkitten, 1998; 박정애, 2002 재인용)은 노인의 삶의 만족도가 네 개의 하위 차원으로 구성되었다고 보았다. 첫째는 '자아 성취감'으로 니가르텐의 '목적의 성취'와 유사하다. 둘째는 '현실 만족감'이며 니가르텐의 '현재의 삶에 대한 만족'과 유사하다. 셋째는 '자아 존중감'으로 니가르텐의 '긍정적 자아상'에 대응된다. 넷째는 '노화에 대한 태도'이다. 뉴키티가 분류한 삶의 만족도의 하위 차

원은 니가르텐의 하위 차원과 많은 부분 유사하지만 ‘노화에 대한 태도’를 하위차원으로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적이다.

버르와 동료들(Burr, Leight, and Contantine, 1979; 한형수 2004 재인용)은 삶의 만족도를 보다 단순한 구조로 제시한다. 이들은 삶의 만족도가 두 개의 이론적 구인으로 구성되었다고 주장한다. 첫째 차원은 개인이 자신의 인생에 대해 갖는 긍정적 기대와 기대 충족 사이의 일치정도이며, 두번째 차원은 주관적으로 경험한 만족과 불만족, 행복과 불행, 즐거움과 괴로움이다.

삶의 만족도를 다차원적 구조로 정의하는 시각은 한국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김익기(1997)는 한국 노인의 삶의 만족도는 첫째,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의 삶에 대한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태도 둘째, 개인의 삶에 부여한 가치의 정도 셋째, 긍정적 정서 및 생활 전반에 대한 주관적 만족의 정도로 구성되었다고 설명한다.

3. 연구방법

1) 분석자료

본 연구는 건국대학교 ‘Silver Care Research Center’가 실시한 ‘충주지역 고령 인구의 보건·복지 실태’ 조사의 원자료를 이용하였다. ‘충주지역 고령 인구의 보건·복지 실태’ 조사는 충주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 307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대상자 선정은 다단계 임의표집을 통해 이루어졌다. 첫 단계에서 충주지역 25개 읍·면·동 중 10개 조사 지역을 임의표집 하였다. 다음 단계에서는 ‘충주지역 교통 수단 지급 대상자 명단’을 표본의 틀로, 조사 지역별로 50명의 노인을 임의표집 하였다. 임의표집된 500명의 조사 대상자 중 307명이 조사를 완료하여 61.4%의 응답률을 기록했으며 신뢰도가 낮은 사례를 제외한 275 사례가 분석되었다. 자료 수집은 사회복지학과와 간호학과 재학생들로 구성된 유급 면접원에 의해 이루어졌다. 면접원은 2회의 면접원 교육을 받았으며 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한 대면 면접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2) 분석 대상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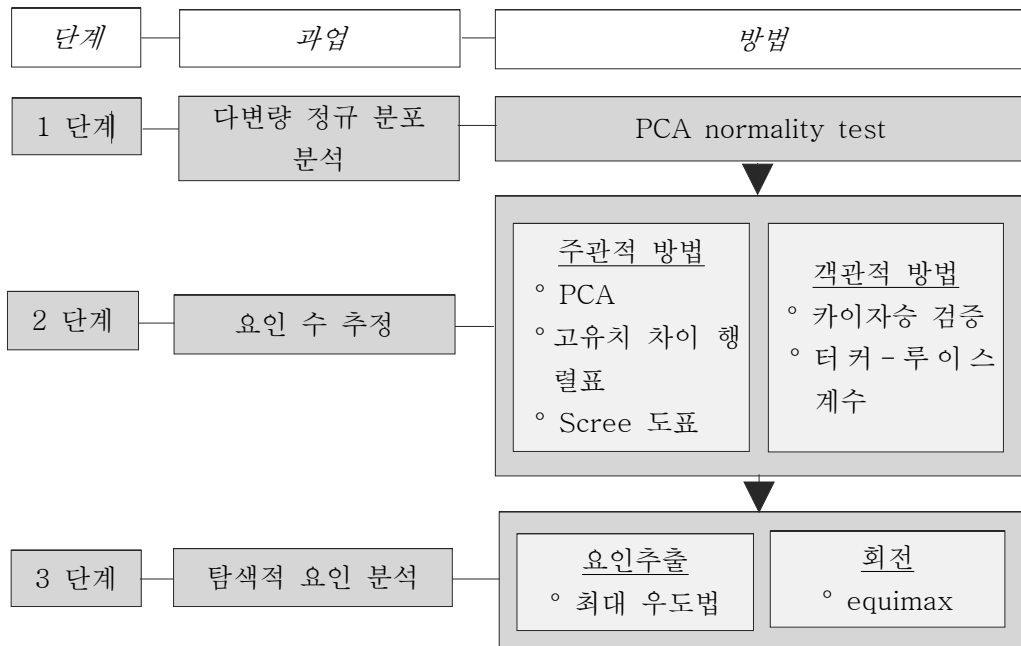
분석 대상자의 55.6%는 여성 노인 그리고 44.4%는 남성 노인으로 나타났다. 노인들은 평균 73.78(sd=5.83)세로 최소 66세에서 최고 95세의 연령 범주를 보였다. 기혼으로 배우자와 함께 살고 계신 노인은 65%, 사별하신 노인은 33.8%, 그리고 이혼하신 노인은 0.7%로 나타났다. 교육 수준은 무학이나 서당을 다닌 경험이 있는 노인이 36.7%, 초등학교를 졸업하신 노인이 48.7%, 그리고 중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노인이 14.6%로 나타났다. 직업을 갖고 있는 노인은 33.5%였으며, 42.9%의 노인은 충주시 도심지역에 그리고 57.1%의 노인은 충주시 읍·면 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의 소득을 묻는 질문에는 204명의 노인만이 응답했으며 응답자의 월평균 가구 소득은 926,628(sd=2,480,733)원으로 나타났다.

3) 분석 방법

(1) 연구문제 1 : 노인 생활 만족도 척도의 구조적 차원성은 무엇인가?

노인 생활 만족도의 구조적 차원성(dimensionality)을 규명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탐색적 요인 분석을 위한 첫 단계로, 분석 자료가 요인 분석에 적합한가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다변량 정규 분포도가 분석되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요인의 수를 추정하기 위해 PCA, 고유치 차이 행렬표, Scree 도표 등의 주관적 지표와 카이자승 검증, 터커-루이스 계수의 객관적 지표가 분석되었다. 마지막 단계에서 추정된 요인 수를 바탕으로 노인 생활 만족도를 구성하는 하위 체계가 탐색적 요인 분석을 통해 조사되었다. 탐색적 요인 분석에서 요인 추출법은 최우도법을 사용했으며 회전은 직교 회전의 equimax로 이루어졌다. 연구문제 1을 위한 분석의 절차와 단계별 분석법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하위 차원 분석을 위한 분석의 틀

(2) 연구문제 2: 노인 생활 만족도를 구성하는 이론적 구인의 심리측정적 특성은 무엇인가?

탐색적 요인 분석을 통해 밝혀진 노인 생활 만족도의 이론적 구인의 심리측정적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 신뢰도와 타당도가 분석되었다. 신뢰도는 문항 내적 일치도를 통해 조사되었다.

타당도는 내적 구조에 근거한 타당도와 다른 변수와의 관계에 근거한 타당도가 분석되었다. 내적 구조에 근거한 타당도는 노인 생활 만족도의 총점과 하위 차원과의 상관 관계를 통해 추정하는 상관 계수법이 사용되었다. 다른 변수와 관계에 근거한 타당도³⁾는 수렴 타당도와 판별 타당도가 조사되었으며 중다특성-중다방법(multitraits-multimethods)을 통해 분석되었다. 중다특성-중다방법은 상관 계수를 사용하여 특성 효과(trait effect)와 방법 효과(method effect)를 비교함으로써 수렴 타당도와 판별 타당도를 검증한다(황정규, 1998). 중다특성-중다방법에는 상관 계수 행렬, 변량분석, 그리고 확인 요인분석의 세 가지 모형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상관 계수 행렬 모형이 사용되었다.

<표 1> 심리측정적 속성의 분석 방법

속성	유형		방법
신뢰도	내적 일치도		Chronbach's alpha
타당도	내적 구조에 근거한 타당도		상관 계수법
	다른 변수와의 관계에 근거한 타당도	수렴 타당도	중다특성-중다방법
판별 타당도			

4) 분석 변수와 측정 도구

본 연구의 분석 변수는 주로 중다특성-중다방법 분석에 사용되었다. 중다특성-중다방법 분석을 위해, 삶의 만족도, 부정적 정서, 자기 가치, 신체적 건강의 네 가지 특성이 분석되었다. 각 특성은 첫째, 노인 생활 만족도의 하위척도와 SF-12 등 사회적 척도를 이용한 표준화된 방법과 둘째, 하나의 질문을 이용한 주관적 평정방법으로 측정되었다.

(1) 노인 생활 만족도

노인 생활 만족도는 최성재(1986)에 의해 개발된 ‘노인 생활 만족도 척도’를 통해 측정되었다. 노인 생활 만족도 척도는 노인의 과거, 현재, 미래의 삶에 대해 묻는 2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응답 유형은 ‘그렇다’, ‘그렇지 않다’, ‘잘 모르겠다’로 이루어져 있으며 3점 척도로 측정된다. 높은 점수는 높은 정도의 생활 만족도를 의미한다.

3) 다른 변수들과의 관계에 근거한 타당도의 종류에는 수렴 및 판별 타당도 이외에 검사-준거관련 타당도와 타당도 일반화가 있다(성태제, 2002).

(2) 주관적 삶의 만족도

주관적 삶의 만족도는 '나는 나의 삶에 대체로 만족한다'의 한 문항을 통해 측정되었다. 응답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의 5점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높은 점수는 높은 정도의 주관적 삶의 만족도를 나타낸다.

(3) 주관적 부정적 정서

주관적 부정적 정서는 우울로 개념화 되었다. 주관적 부정적 정서는 '우울하다'의 한 문항을 통해 측정되었다. 응답은 '거의 대부분 그렇다'에서 '그렇지 않다'의 4점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높은 점수는 높은 정도의 우울을 의미한다.

(4) 주관적 자기 가치

자기 가치는 '나는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의 한 문항을 통해 측정되었다. 응답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의 5점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높은 점수는 높은 정도의 자기 가치를 나타낸다.

(5) 신체적 건강

신체적 건강은 SF-12 척도의 문항 중 신체적 건강에 대한 6개의 질문을 통해 측정되었다. 응답은 '항상 그랬다' 또는 '최상이다'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 또는 '나쁘다'의 5점 척도로 구성되었다. 높은 점수는 높은 정도의 신체적 건강을 의미한다.

(6) 주관적 신체건강

주관적 신체건강은 Euro-Qual 척도를 통해 측정되었다. Euro-Qual은 '어르신의 건강 상태를 가장 적절히 나타내는 점수는 몇 점입니까?'라는 하나의 질문으로 이루어져 있다. 최악의 건강 상태를 나타내는 0에서 최상의 건강상태를 나타내는 100까지의 눈금 중 응답자의 건강 상태를 가장 적절히 보여 준다고 판단되는 눈금에 표시하도록 되어있다. 눈금의 간격은 1로 0에서 100사이의 모든 정수가 이론적으로 가능한 점수이다. 높은 점수는 높은 정도의 신체적 건강을 나타낸다.

4. 연구결과

1) 요인구조

(1) 다변량 정규 분포도(Multi-variate normality)

다변량 정규 분포도는 관찰 변수로부터 추출된 주요 요인(principal component)의 정규 분포도를 분석함으로써 검증될 수 있다(이순목, 2000). ‘노인 생활 만족도 척도’의 20개 문항으로부터 추출된 주요 요인 중 고유치가 1을 초과하는 다섯 개 주요 요인의 정규분포도가 정규 확률도와 왜도치를 통해 조사되었다. 주요 요인의 왜도치는 각각 -0.18, 0.37, -0.17, 0.06, 그리고 0.18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 확률도 역시 각 주요 요인이 정규적으로 분포되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본 연구의 분석 자료는 요인 분석에 적합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2) 요인 수의 추정

요인 구조를 밝히는 작업은 적절한 요인 수를 결정한 뒤 이루어질 수 있다. 요인 수에 대한 결정은 측정 대상인 개념의 이론적 구인에 대한 연구자의 논리적 가정으로부터 출발한다. 앞서 기술된 삶의 만족도의 정의와 차원성에 대한 고찰을 근거로 본 연구자는 ‘노인 생활 만족도 척도’가 목적 성취감, 자기 가치 또는 존중감, 긍정적 또는 낙관적 태도, 그리고 삶의 의미의 네 개의 이론적 구인으로 구성된다고 가정하였다. 그러나 연구자의 주관적 판단에 더하여 주요 성분 분석, 고유치 차이 행렬표(matrix of difference), 스크리 도표(scree plot), 그리고 우도 추정치 검사(likelihood ratio test statistic) 등의 지표가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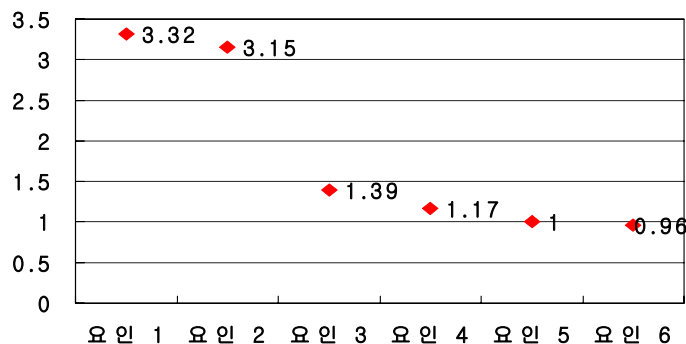
주요 성분 분석 결과, 고유치(eigen value)가 1을 초과하는 다섯 개의 주요 성분이 추출되었다. 이는 노인 생활 만족도로부터 다섯 개의 이론적 구인이 추출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고유치 차이 행렬표⁴⁾는 요인 수를 다섯 개로 추정하는 경우 그 차이가 0.04로 매우 작아 요인 수가 감소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반면 요인 수를 두개로 가정하는 경우 그 차이는 1.75로 기준치 0.25보다 커 요인 수를 증가하는 것이 적절함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고유치 차이 행렬표에 따라 노인 생활 만족도의 이론적 구인 수는 세 개 정도가 가장 적합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4) 고유치 차이행렬은 변수들 사이의 관찰된 상관계수와 요인분석에 의해 재생산된 상관계수의 차이를 나타낸다. 적절한 요인의 수를 추정하기 위해, 이 차이가 작은 경우 요인의 수를 줄이고 역으로 차이가 0.25보다 큰 경우는 요인의 수가 더 많다고 판단할 수 있다.

<표 2> 주요성분 분석 결과

	고유치	차이 행렬표	비율	누적치
1	3.32	0.17	0.17	0.17
2	3.15	1.75	0.16	0.32
3	1.39	0.22	0.07	0.39
4	1.17	0.17	0.06	0.45
5	1.00	0.04	0.05	0.50
6	0.96	0.07	0.05	0.55

<그림 2>의 스크리 도표 역시 요인의 수가 네 개 이상인 경우 충분히 0에 가까워지므로 적절한 요인의 수는 세 개임을 보여준다. 따라서 주요 성분 분석, 차이 행렬, 그리고 스크리 도표를 통해 삶의 만족도를 구성하는 가장 적절한 요인의 수는 세 개로 추정될 수 있다. 그러나 연구자의 이론적 가정을 포함하여 이상의 지표들은 해석의 과정에서 여전히 주관적인 요소들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갖는다(Johnson, 1998).



<그림 2> 스크리 도표

반면 최대 우도법을 이용한 요인 분석 결과를 통해 구해지는 카이제곱 검증과 터커-루이스 계수는 결과의 해석이 주관적 판단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가장 객관적인 지표로 평가된다(Johnson, 1998; 이순목, 2000). 요인의 수를 두 개로 설정한 최대 우도법에 의한 요인 분석 결과, 카이제곱 값은 237.30으로 ‘두 개의 요인이 충분하다’의 영가설이 기각되었으며 이는 요인의 수가 증가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요인의 수를 세 개로 설정한 최대 우도법에 의한 요인분석 결과, 카이제곱 값은 112.56으로 ‘세 개의 요인이 충분하다’의 영가설이 채택되었다. 요인의 수를 네 개로 설정한 요인 분석의 결과 역시 ‘네 개의 요인이 충분하다’의 영가설을 채택하였다. 요인 수가 세 개인 경우와 네 개인 경우 모두 영가설이 채택되었으나 카이제곱 값이 상대적으로 작다는 점에서 가장 적절한 요인 수는 세 개로 추

정된다.

터커-루이스 계수⁵⁾는 요인의 수를 두 개로 가정했을 때 0.87로 0.9에 미치지 못해 추정되는 요인의 수를 증가해야 함을 말해준다. 반면 요인의 수를 세 개로 가정한 경우 터커-루이스 계수가 0.98로 0.90보다 크고 0.95에 근접하므로 요인의 수를 세 개로 추정하는 것이 가장 적절함을 말해준다. 이상에서 살펴본 주관적, 객관적 분석결과에 의해 노인 생활 만족도 척도의 이론적 구인 수는 세 개로 추정되었으며 이는 노인 생활 만족도 척도가 세 개의 차원으로 구성되었음을 의미한다.

<표 3> 최대 우도법 분석 결과

	요인 수	df	χ^2	터커-루이스 계수
1	2	151	237.30***	0.87
2	3	133	112.56	0.98
3	4	116	140.43	1.06

*p<0.05 **p<0.01 ***p<0.001

(3) 요인 구조

노인 생활 만족도의 요인 구조를 밝히기 위해 요인 수를 세 개로 설정한 요인 분석을 실행하였다. 요인 추출은 최대 우도법을 사용했으며 회전은 직교 회전(orthogonal rotation)의 equimax로 이루어졌다. 사회과학에서 공통 인자 간의 관계를 독립적이라고 가정하는데 무리가 있으나 사교회전(oblique rotation)의 경우 회전 후 구해진 인자에 대한 해석이 난해하다는 이유에서 직교회전을 사용하였다(이순목, 2000).

요인 분석 결과, 요인 적재량이 0.3⁶⁾ 이상으로 요인 1에 적재된 문항은 2, 3, 7, 8, 9, 10, 15, 16, 17의 아홉 개이다. 요인 2에는 문항 5, 6, 11, 12, 13, 14, 20의 일곱 개 문항이 적재되었다. 그리고 요인 3에는 문항 5, 18, 19의 세 개 문항이 적재되었다. 문항 1과 문항 4는 어떤 요인에도 적재되지 않았으며 문항 5는 요인 2와 요인 3의 두 요인에 적재되었다. 요인 1의 communality는 3.97로 노인 생활 만족도 총 분산의 41%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인 2의 communality는 2.92로 총 분산의 30%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요인 3의 communality는 2.88로 총 분산의 29%를 설명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5) 터커-루이스 계수는 '분석자료에 최악으로 합치되는 모형과 최상으로 합치되는 모형을 상정하고 연구자가 가정하는 모형이 어디쯤 있는가를 알아본다. 계수가 0.9미만이면 너무 작은 수의 요인을 가정했다고 본다. 0.95정도의 계수가 가장 바람직하다(이순목, 2000, p. 52)'.

6) 요인 적재량이 0.3 이상이면 일반적으로 유의하다고 받아들여지며, 0.4 이상일 경우에는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Johnson, 1998).

<표 4> 노인 생활 만족도의 요인 구조

문항	요인 1	요인 2	요인 3
1. 지난 평생을 돌아볼 때 후회할 일이 별로 없다	0.24	-0.00	-0.02
2. 나의 지난 평생은 성공적인 편이다	0.32	-0.03	-0.07
3.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다복한 편이다	0.42	-0.11	-0.22
4. 나는 동갑내기들 보다 어리석은 판단을 많이 내린 편이다	0.15	0.09	0.12
5. 내가 살아온 길을 되돌아보면 이루어 놓은 것이 별로 없다	0.05	0.37	0.39
6. 나의 지난 평생은 힘들고 괴로워서 생각하기도 싫다	0.07	0.47	0.19
7. 요즈음 나는 살맛이 난다	0.66	0.01	0.05
8. 나이를 먹어가면서 세상이 생각했던 것보다 좋게 느껴진다	0.56	0.09	0.06
9. 요즈음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즐거운 때이다	0.59	0.03	0.11
10. 나는 현재의 생활방식에 만족한다	0.44	-0.19	-0.06
11. 매일 매일의 생활이 따분하고 지루하다	-0.15	0.51	0.21
12. 요즈음 나는 매사가 짜증스럽고 귀찮다	-0.01	0.62	0.22
13. 요즈음 기쁜 일보다는 슬픈 일이 더 많다	-0.01	0.53	-0.00
14. 요즈음 화나는 일만 점점 더 많아진다	0.07	0.63	0.05
15. 나는 오래오래 살고 싶다	0.40	0.02	0.01
16. 앞으로 살아가는 데 희망이 있다	0.62	-0.05	0.03
17. 앞으로 내 주위에 재미있고 즐거운 일이 많이 생길 것 같다	0.63	0.11	-0.03
18. 앞으로 내가 할 만한 일은 거의 없을 것이다	-0.06	0.09	0.74
19. 나는 가치 있는 일을 더 이상 할 수 없을 것이다	0.00	0.17	0.70
20. 더 이상 나이 먹는 것보다는 죽는 편이 낫다	-0.05	0.30	0.24
Total communality 9.787	3.979	2.923	2.884
요인분산퍼센트	41%	30%	29%

노인 생활 만족도를 구성하는 20개의 문항 중 어떤 요인에도 적재되지 않은 문항 1과 문항 4를 제외한 18개 문항만을 이용하여 요인 분석의 동일한 과정을 반복하였다. 분석 결과, 18개 문항의 요인 구조는 20개 문항의 요인 구조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인 적재량의 변화는 관찰되었으나 변화량의 크기는 매우 작았다. 문항 1과 문항 4를 제외한 18개 문항의 총 communality는 9.699로 20개 문항의 총 communality 9.787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살펴본 결과를 근거로, 연구자는 18개 문항의 세 차원 구조를 노인 생활 만족도의 최종 구조로 제안하였다. 요인 1은 아홉 개 문항(2, 3, 7, 8, 9, 10, 15, 16, 17)으로 구성되었으며 ‘긍정적 정서와 주관적 만족감’으로 명명되었다. 요인 2는 여섯 개 문항(6, 11, 12, 13, 14, 20)으로 구성되었으며 ‘부정적 자아상과 부정적 정서’로 명명되었다. 그리고 요인 3은 세 개 문항(5, 18, 19)으로 이루어졌으며 ‘자기 가치’로 명명되었다. 문항 5는 요인 2와 요인 3에 중복 적재되었으나 한 문항이 둘 이상의 요인에 적재되는 경우 요인 적재량이 상대적으로 큰 요인에 포함한다는 일반적인 규칙에 따라 문항 5는

요인 3에 포함하였다. 요인 1에는 긍정적 정서를 나타내는 문항이 주로 적재된 반면 요인 2에는 부정적 정서를 나타내는 문항이 주로 적재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심리적 복지(psychological well-being)에 대한 ‘이중 요인 관점(two-factor view)’을 뒷받침 한다. ‘이중 요인 관점’은 삶의 만족도와 같은 심리적 복지는 긍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의 합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며 긍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는 독립적 요인으로 삶의 만족도를 구성한다고 주장한다. 즉 긍정적 정서나 부정적 정서의 증가가 대립 정서의 상쇄로 연계되지 않고, 긍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는 서로의 증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표 5> 18문항 노인 생활 만족도의 요인구조

문항	요인 1	요인 2	요인 3
2. 나의 지난 평생은 성공적인 편이다	0.31	-0.03	-0.08
3.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다복한 편이다	0.42	-0.11	-0.23
5. 내가 살아온 길을 되돌아보면 이루어 놓은 것이 별로 없다	0.05	0.36	0.39
6. 나의 지난 평생은 힘들고 괴로워서 생각하기도 싫다	0.07	0.47	0.19
7. 요즈음 나는 살맛이 난다	0.66	0.02	0.03
8. 나이를 먹어가면서 세상이 생각했던 것보다 좋게 느껴진다	0.55	0.09	0.04
9. 요즈음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즐거운 때이다	0.60	0.03	0.10
10. 나는 현재의 생활방식에 만족한다	0.44	-0.19	-0.07
11. 매일 매일의 생활이 따분하고 지루하다	-0.16	0.51	0.21
12. 요즈음 나는 매사가 짜증스럽고 귀찮다	-0.01	0.62	0.22
13. 요즈음 기쁜 일보다는 슬픈 일이 더 많다	-0.01	0.53	-0.00
14. 요즈음 화나는 일만 점점 더 많아진다	0.07	0.63	0.05
15. 나는 오래오래 살고 싶다	0.40	0.02	0.00
16. 앞으로 살아가는 데 희망이 있다	0.61	-0.05	0.01
17. 앞으로 내 주위에 재미있고 즐거운 일이 많이 생길 것 같다	0.62	0.11	-0.04
18. 앞으로 내가 할 만한 일은 거의 없을 것이다	-0.04	0.09	0.75
19. 나는 가치 있는 일을 더 이상 할 수 없을 것이다	0.01	0.17	0.70
20. 더 이상 나이 먹는 것보다는 죽는 편이 낫다	-0.04	0.30	0.24
Total communality 9.699	3.897	2.918	2.883
요인분산퍼센트	40%	30%	30%

2) 신뢰도

노인 생활 만족도를 구성하는 세 이론적 구인의 신뢰도는 문항 내적 일관성(internal consistency)을 통해 분석되었다. 문항 내적 일관성을 추정하는 방법 중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Chronbach's α

가 산출되었다.

요인 1 ‘긍정적 정서와 주관적 만족감’의 문항 내적 일관성은 Chronbach’s α 값이 0.85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요인 2 ‘부정적 자아상과 부정적 정서’의 문항 내적 일관성 역시 Chronbach’s α 값이 0.81로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요인 3 ‘자기 가치’의 문항 내적 일관성은 Chronbach’s α 값이 0.73으로 요인 1과 요인 2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으나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 생활 만족도의 세 요인 모두 문항 수가 제한적임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높은 정도의 신뢰도를 보였다.

<표 6> 요인 별 신뢰도

요인	요인 이름	문항수	Chronbach's α
요인 1	긍정적 정서와 주관적 만족감	9	0.846
요인 2	부정적 자아상과 부정적 정서	6	0.810
요인 3	자기 가치	3	0.727

3) 타당도

타당도를 검사의 고유한 속성으로 규정하던 시각이 점차 검사 결과를 통해 타당성의 근거를 수집하고 제시하는 과정으로 변화하였다(성태제, 2002). 타당도의 정의 역시 ‘검사 점수로 나타난 추론의 적합성’에서 ‘검사 점수의 해석에 대해서 이론이나 근거가 지지해 주는 정도’로 수정되었다. 본 연구는 자료의 제한성으로 인해 1) 내적 구조에 근거한 타당도와 2) 다른 변수에 근거한 타당도의 두 가지 타당도를 분석하였다.

(1) 내적 구조에 근거한 타당도

내적 구조에 근거한 타당도는 구인 타당도(construct validity)라고도 불리어진다. 구인이란 존재하는 것처럼 가정된 심리적 개념으로 구체적인 심리적 특성과 행동 양식들을 의미한다. 구인 타당도는 사회 척도의 각 문항이 사회 척도의 구조에 대한 가정을 지지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즉 노인 생활 만족도를 측정하는 18개의 문항이 ‘긍정적 정서와 주관적 만족감’, ‘부정적 자아상과 부정적 정서’, 그리고 ‘자기 가치’로 명명된 노인 생활 만족도의 세 차원 구조를 어느 정도 지지하는가의 정도를 말한다.

구인 타당도는 상관 계수법을 통해 추정할 수 있다(성태제, 2002). 상관 계수법은 각 구인 점수와 사회 척도의 총점과의 상관 계수를 통해 타당도를 검증하는 방법으로 각 구인 점수와 총점과의 상관 계수가 높을수록 구인 타당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7>에 제시된 바와 같이, ‘긍정적 정서와 주관적 만족감’과 노인 생활 만족도 총점과의 상관 계수는 0.91($r=0.91$, $p<0.0001$)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부정적 자아상과 부정적 정서’와의 상관 계수 또한 0.87($r=0.87$, $p<0.0001$)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자기 가치’와 노인 생활 만족도 총점과의 상관 계수는 0.68($r=0.68$, $p<0.0001$)로 ‘긍정적 정서와 주관적 만족감’ 그리고 ‘부정적 자아상과 부정적 정서’

구인의 상관 계수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상관 계수가 0.4 이상인 경우, 두 변수 간의 상관 관계가 충분하다고 판단하는 일반적인 기준을 적용해 볼 때, ‘자기 가치’와 노인 생활 만족도 총점과의 상관 관계 역시 구인 타당도를 지지하기에 충분히 높다고 판단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노인 생활 만족도의 세 구인은 노인 생활 만족도의 총점과 높은 정도의 상관 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는 노인 생활 만족도가 ‘긍정적 정서와 주관적 만족감’, ‘부정적 자아상과 부정적 정서’, 그리고 ‘자기 가치’의 세 차원으로 구성되었다는 가정의 타당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제공한다.

<표 7> 내적 구조에 근거한 타당도

	긍정적 정서와 주관적 만족감	부정적 자아상과 부정적 정서	자기 가치	노인 생활만족도
긍정적 정서와 주관적 만족감	1.00			
부정적 자아상과 부정적 정서	-0.67***	1.00		
자기 가치	0.47***	-0.53***	1.00	
노인 생활만족도	0.91***	-0.87***	0.68***	1.00

*p<0.05 **p<0.01 ***p<0.001

(2) 다른 변수와의 관계에 근거한 타당도

다른 변수와의 관계에 근거한 타당도는 동일하거나 또는 관련된 구인을 측정하는 외적 변수와의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검사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방법이다(성태제, 2002). 동일한 구인을 측정하는 외적 변수와의 높은 상관관계는 수렴의 근거를 제공하고 다른 특성을 측정하는 외적 변수와의 낮은 상관관계는 판별의 근거를 제공한다. 판별의 근거를 제공하는 변수로 신체적 건강이 사용되었다. 신체적 건강은 삶의 만족도를 결정하는 유의한 변수인 반면 삶의 만족도와는 독립적인 구인이라는 점에서 판별 타당성을 검증하기에 적합한 변수이다. 수렴과 판별 타당도는 중다특성-중다방법(multi traits-multi methods)의 행렬표 분석을 통해 조사하였다.

① 이론적 구인 1 : 긍정적 정서와 주관적 만족감

표준화된 척도를 이용하여 측정된 ‘긍정적 정서와 주관적 만족감’은 주관적 평가를 통해 측정된 노인 생활 만족도와 높은 상관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r=0.62$, $p<0.0001$). 이는 노인 생활 만족도의 ‘긍정적 정서와 주관적 만족감’이 수렴 타당도가 있음을 나타낸다.

수렴 타당도는 판별 타당도의 필요조건 중 하나이며 측정 도구가 판별 타당도를 갖기 위해서는 다음의 필요 조건 역시 만족해야 한다. 첫째, 수렴 타당도 계수(동일특성-이질방법의 상관계수)는 이질특성-이질방법 상관 계수보다 커야 한다. 둘째, 수렴 타당도 계수는 이질특성-동질방법 상관계수보다 커야 한다(황정규, 1998). <표 8>에 제시된 ‘긍정적 정서와 주관적 만족감’의 중다특성-중다분석 행렬표

를 살펴보면, 동질특성-이질방법 계수인 표준화된 측정도구를 이용한 ‘긍정적 정서와 주관적 만족감’과 주관적 평가에 의한 삶의 만족도의 상관계수는 0.62로 이질특성-이질방법 계수인 표준화된 측정도구를 이용한 ‘긍정적 정서와 주관적 만족감’과 주관적 평가에 의한 신체 건강과의 상관 계수 0.38보다 크다. 또한 이질특성-동질방법 계수인 표준화된 측정 도구를 이용한 ‘긍정적 정서와 주관적 만족감’과 표준화된 측정 도구를 이용한 신체적 건강과의 상관계수 0.39보다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에 따라, ‘긍정적 정서와 주관적 만족감’은 판별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8> 긍정적 정서와 주관적 만족감의 중다특성-중다분석 행렬

	만족감*표준화 (만족감척도)	만족감*평정 (주관적 삶의 만족)	신체건강 *표준화 (SF12)	신체건강*평정 (주관적 신체건강)
만족감*표준화 (만족감척도)	1.00			
만족감*평정 (주관적 삶의 만족)	0.62***	1.00		
신체건강*표준화 (SF12)	0.39***	0.25**	1.00	
신체건강*평정 (주관적 신체건강)	0.38***	0.27**	0.57***	1.00

*p<0.05 **p<0.01 ***p<0.001

② 이론적 구인 2: 부정적 자아상과 부정적 정서

표준화된 척도인 노인 생활 만족도를 통해 측정된 ‘부정적 자아상과 부정적 정서’와 주관적 평가를 통해 측정된 ‘우울’ 사이의 상관 관계를 나타내는 동질특성-이질방법 상관계수는 0.63($r=0.63$, $p<0.0001$)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부정적 자아상과 부정적 정서’는 수렴 타당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부정적 자아상과 부정적 정서’의 동질특성-이질방법 상관 계수는 이질특성-이질방법 상관 계수인 0.33($r=-0.33$, $p<0.0001$) 보다 크며 이질특성-동질방법 상관 계수인 0.38($r=-0.38$, $p<0.0001$) 보다 크다. 따라서 ‘부정적 자아상과 부정적 정서’는 판별 타당도를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9> 부정적 자아상과 부정적 정서의 중다특성-중다분석 행렬

	부적정서*표준화 (부적정서척도)	부적정서*평정 (주관적 부정적 정서)	신체건강*표준화 (SF12)	신체건강*평정 (주관적 신체건강)
부적정서*표준화 (부적정서척도)	1.00			
부적정서*평정 (주관적 부정적 정서)	0.63***	1.00		
신체건강*표준화 (SF12)	-0.38***	-0.41***	1.00	
신체건강*평정 (주관적 신체건강)	-0.33***	-0.37***	0.57***	1.00

*p<0.05 **p<0.01 ***p<0.001

③ 이론적 구인 3 자기 가치

‘자기 가치’의 동질특성-이질방법 상관 계수는 0.39(r=0.39, p<0.0001)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자기 가치’는 수렴 타당도를 갖는 것으로 분석된다. ‘자기 가치’의 동질특성-이질방법 상관 계수는 이질특성-이질방법 상관 계수 0.30(r=0.30, p<0.0001)보다 크고 이질특성-동질방법 상관 계수 0.36(r=0.36, p<0.0001)보다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동질특성-이질방법 상관 계수와 이질특성-동질방법 상관 계수와의 차이는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났다. 따라서 ‘자기 가치’는 판별 타당성의 필요 조건을 모두 만족하므로 판별 타당성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타당도는 상대적으로 약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10> 자기 가치의 중다특성-중다분석 행렬

	자기 가치*표준화 (자기 가치척도)	자기 가치*평정 (주관적 가치)	신체건강*표준화 (SF12)	신체건강*평정 (주관적 신체건강)
자기 가치*표준화 (자기 가치척도)	1.00			
자기 가치*평정 (주관적 가치)	0.39***	1.00		
신체건강*표준화 (SF12)	0.36***	0.23**	1.00	
신체건강*평정 (주관적 신체건강)	0.30***	0.27**	0.57***	1.00

*p<0.05 **p<0.01 ***p<0.001

5.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노인 생활 만족도 척도'의 구조적 차원성을 탐색하고, 규명된 이론적 구인(theoretical construct)의 심리측정적 특성을 분석하고자 실행되었다. 연구 결과 '노인 생활 만족도 척도'는 세 개의 이론적 구인으로 구성된 다차원적 구조를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노인 생활 만족도 척도'를 하나의 구인으로 이루어진 단일 차원 구조로 밝힌 최성재의 연구와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노년기 삶의 만족도를 다차원적 구조로 주장하는 선행 연구의 보편적 주장과 맥을 같이한다.

연구 결과를 통해 규명된 '노인 생활 만족도 척도'의 이론적 구인은 '긍정적 정서와 주관적 만족감', '부정적 자아상과 부정적 정서', 그리고 '자기 가치'로 명명되었다. 내적 일치도를 통해 조사된 신뢰도는 세 이론적 구인에서 모두 높게 나타났다. '노인 생활 만족도 척도' 총점과의 상관 계수를 통해 분석된 '내적 구조에 근거한 타당도' 역시 세 구인 모두 높게 나타났다. 중다특성-중다방법을 통해 분석된 '다른 변수와의 관계에 의한 타당도'의 경우, '긍정적 정서와 주관적 만족감'과 '부정적 자아상과 부정적 정서'는 수렴 타당도와 판별 타당도가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자기 가치'는 높은 수렴 타당도와 상대적으로 낮은 판별 타당도를 보였다.

최성재의 연구에서 단일 차원으로 규명되었던 '노인 생활 만족도 척도'의 구조적 차원성이 본 연구에서 세 개의 이론적 구인으로 구성된 다차원적 구조로 상이하게 분석된 원인은 두 가지로 추정된다. 첫째, '노인 생활 만족도 척도'의 이론적 구인에 대한 개발자의 가정의 오류이다. 최성재(1986)는 '노인 생활 만족도 척도'가 문항의 시간성에 따라 '과거의 삶의 만족도', '현재의 삶의 만족도', 그리고 '미래의 삶의 만족도'의 세 개의 이론적 구인으로 구성되었다고 가정했다.

그러나 최성재의 가정은 그의 연구에서 지지되지 못했다. 노인 생활 만족도는 과거의 삶에 대한 누적적 경험과 미래의 삶에 대한 기대가 반영된 현 시점에서 바라보는 삶에 대한 종합적 평가이다. 따라서 노인 생활 만족도의 이론적 구인이 시간적 서열성을 기준으로 세 개의 차원으로 명확히 드러나지 않은 최성재의 연구 결과는 어찌면 당연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노인 생활 만족도'의 시간적 총체성을 간과한 최성재의 가정의 오류로 인해, '노인 생활 만족도'의 이론적 구인 구조가 단일하게 나타났다고 사료된다.

둘째, '노인 생활 만족도 척도'의 구조적 차원성의 차이는 최성재의 연구와 본 연구에 참여한 연구 대상자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이다. 최성재의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는 1986년 노년기를 보냈던 노인이며 본 연구의 대상자는 2005년 노년기를 맞고 있는 노인이다. 즉 두 연구의 대상자는 약 20년의 시간적 거리를 두고 있는 서로 다른 연령 동년배(age-cohort)이다. 두 연령 동년배 집단의 특성 중 연구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주목되는 차이는 '표현의 적극성 또는 개방성'이다.

최성재의 연구에 참여한 연령 동년배 집단은 자신의 감정과 정서를 분석적으로 평가하고 또 표현하는데 소극적인 한국 노인의 전통적 특성이 강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반면 본 연구에 참여한 연령

동년배 집단은 자신의 감정을 사정하고 표현하는데 상대적으로 적극적이고 개방적이다. 따라서 두 연령 동년배 사이의 표현의 적극성과 개방성의 차이가 '노인 생활 만족도 척도'의 구조적 차원성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론된다.

최성재의 '노인 생활 만족도 척도'와 동일한 연령 동년배를 대상으로 개발된 윤진(1982)의 '노인 생활 만족도 척도' 역시 한국 노인의 생활 만족도를 단일 차원 구조로 제시하고 있다. 이는 과거 연령 동년배 집단의 표현의 소극성이 '노인 생활 만족도 척도'를 구성하는 이론적 구인간의 차별성을 약화시켜 구인 구조를 단일화 시켰을 가능성을 뒷받침 한다. 특히 '노인 생활 만족도 척도'는 '잘 모르겠다'는 응답 항목을 두고 있어 표현의 소극성에 더욱 허용적이다. 따라서 과거 연령 동년배 집단의 표현의 소극성이 척도의 구조를 단순화시키는데 주요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서양인을 대상으로 개발된 척도가 동양인을 대상으로 재검증 되었을 때, 척도의 구인 구조가 감소한다고 밝힌 선행 연구(최혜지, 2003; Shek, 1991; 1995)의 결과 역시 대상자의 표현의 소극성과 구인 구조의 차원성과의 연관성을 시사한다. '부양 사정 척도'의 문화적 교차 타당도를 검증한 최혜지(2003)의 연구에서, 로튼(1989)에 의해 5-차원 구조로 개발된 '부양 사정 척도'의 구인 구조는 한국 가족 수발자를 대상으로 재검증 되었을 때 세 개의 구인으로 구성된 3-차원 구조로 단순화 되었다. 또한 'State-Trait Anxiety Inventory'와 'Dyadic Adjustment Scale'의 구인 구조를 재검증 한 웨크의 연구(1991; 1995)에서, 중국인을 대상으로 규명된 척도의 구인 구조는 서양인을 대상으로 밝혀진 구인 구조보다 축소되어 나타났다. 이와 같이, 자신의 생각과 감정 표현에 개방적이고 적극적인 서양인을 대상으로 했을 때 보다 감정의 외적 표현을 자제하는 동양인이 대상으로 한 경우, 척도의 구인 구조가 단순화 되고 따라서 척도의 구조적 차원성은 감소한다.

본 연구는 연구 대상자의 특성에 대한 사회 척도의 민감성을 지적하며, 동시에 사회·문화적 환경을 고려하지 못한 사회 척도의 부적절한 사용을 경계한다. 즉 연구 대상자의 사회·문화적 특성은 척도의 구인 구조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척도의 타당성의 문제로 연계됨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사회 척도가 사회·문화적 배경에 종속적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회·문화를 배경으로 개발된 척도가 재검증의 과정 없이 무책임하게 사용되는 예를 볼 수 있다. 그러나 사회 도구의 표준화 없이 사회 과학 연구의 신뢰성과 타당성은 담보될 수 없다. 따라서 특정 시대와 문화권에서 개발된 사회 도구를 우리 시대와 문화에 적합하도록 토착화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본 연구 또한 한국 노인의 특성을 충실히 반영하는 대표성 있는 표본을 사용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제한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제시된, 세 구인으로 구성된 삼차원 구조의 '노인 생활 만족도 척도' 역시 후속 연구를 통해 재검증되기를 기대한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노인 생활 만족도 척도'는 현대 한국 노인에게 적합한 척도로 발전적 진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김익기. 1999. 『한국노인의 삶: 진단과 전망』. 서울: 미래인력연구센터.
- 박영숙. 2003. “노인 교육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노인복지연구』 21: 99-121.
- 박정애. 2002. “노인의 성생활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인문정보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성태제. 2002. 『타당도와 신뢰도』. 서울: 학지사.
- 윤 진. 1982. “노인 생활 만족 척도 제작 연구”. 『한국심리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초록』 26-30.
- 이순복. 2000. 『요인분석의 기초』. 서울: 교육과학사.
- 이효재. 1979. “한국 저소득층 노인 생활에 관한 사회 경제 및 공간 문제 연구”. 『한국문화연구원 논집』
- 임희섭. 1996. “삶의 질의 개념적 논의”. 『한국행정연구』. 5(1): 5-18.
- 최성재. 1986. “노인의 생활 만족도 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논총』.
- 한정란·김수현. 2004. “농촌 남녀 노인의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자아존중감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노인복지연구』 26: 91-118.
- 한형수. 2004. “한국사회 도시노인의 삶의 질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정책』 19: 113-142.
- 황정규. 1998. 『교육측정·평가의 새 지평』. 서울: 교육과학사.
- Bradburn, M. 1969. *The structure of well-being*. Chicago, IL: Aldine.
- Choi. 2003. “Cultural cross validation of Caregiving Appraisal Scale”. *Journal of the Korea Gerontological Society* 23: 129-148.
- Felce, D., and P Jonathan. 1996. “Assessment of quality of life”. in Schallock, Robert. and Siperstein, G. (Eds). *Quality of life. American Association of Mental Retardation*. pp. 111-135.
- George, L. 1979. “The happiness syndrome”. *The Gerontologist* 19(2): 210-211.
- Johhson, D. 1998. *Applied multivariate methods for data analysts*. Pacific Grove, CA: Duxbury Press.
- Kalish, R. 1975. *Late adulthood: Perspectives on human development*, Berkely, CA: Cole Publishing co.
- Lawton, P. 1983. "Environment and other determinants of well-being in older people." *The Gerontologist*, 23, 349-357.
- Lawton, P., M. Moss, M. Kleban, A Glicksman, and M Rovine. 1991. "A two-factor model of caregiving appraisal and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Gerontology*, 46(4), P181-P189.
- Medley, M. 1976. “Satisfaction with life among person 65 years and older”. *Journal of Gerontology* 31(4): 448-449.
- Neugarten, B., R. Havighurst, and S Tobin. 1961. “The measurement of life satisfaction”. *Journal of Gerontology* 16: 134-143.
- Shek, D. 1991. "The factorial structure of the Chinese version of the State-Trait Anxiety Inventory".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1: 985-997.
- Shek, D. 1995. "The Chinese version of the Dyadic Adjustment Scale".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51: 802-811.

Watson, D., and A. Tellegen. 1985. "Toward a consensual structure of mood".
Psychological Bulletin, 98, 219-235.

Life Satisfaction Scale for Elderly : Revisited

Choi, Hye-Ji

(Seoul Woman's University)

Lee, Young-Boon

(Konkuk University)

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was to investigate dimensionality and psychometric properties of identified theoretical constructs of the 'Life Satisfaction Scale for Elderly(LSSE)', which was developed by Choi, Sung-Jae in 1986.

Data was obtained from 'The survey of health and welfare status of the elderly aged 65 or older in Chung-Choo city'. The subjects were 275 elderly.

Results showed that LSSE had a multi-dimensional structure with three theoretical constructs. Each theoretical construct was named as 'positive affect and subjective satisfaction', 'negative self image and affect', and 'self-value'. Three theoretical constructs had high levels of reliability and validity based on internal construct. 'Positive affect and subjective satisfaction' and 'negative self image and affect' showed high levels of convergent and discriminant validity. 'Self-value' had a high level of convergent validity but acceptable level of discriminant validity.

Results of this study revealed that there was a difference in theoretical dimensionality of LSSE between this study and Choi's study, which explained the dimensionality of LSSE as a single dimension. However, the result of this study regarding theoretical dimensionality supported findings from existing studies which insisted that life satisfaction had a multi-dimensional structure.

Key word : elderly, life satisfaction, social instrument, measurement, validity, reliability

[접수일 2006. 2. 23. 게재확정일 2006. 4. 24]